



금융감독원

# 보 도 참 고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4.12.11.(수) 10:30	배포	2024.12.11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인사연수국 인사기획팀	책임자	팀 장	장영심	(02-3145-5472)
		담당자	수 석	김민호	(02-3145-5473)

## 금감원장, 신임 지원장·해외사무소장 등에 원외(院外)에서도 시장안정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

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.11일(수) 오전 신임 지원장·해외사무소장·파견협력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

○ 금융·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서 시장안정화를 위해 본원 뿐만 아니라 지원 및 해외사무소 등 금감원의 모든 조직과 기능이 합심하여 총력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□ 지원\*에 대해서는 지자체, 지역소재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내 금융·산업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

\* 11개 지원(부산울산, 대구경북, 광주전남, 대전세종충남, 인천, 경남, 제주, 전북, 강원, 충북, 강릉)

○ 불안심리를 악용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이 발생하거나, 서민·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내 상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해외사무소\*에 대해서는 금융·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, 해외 투자자 등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여,

\* 6개 해외사무소(뉴욕, 런던, 동경, 북경, 프랑크푸르트, 하노이)중 신규 임명된 뉴욕사무소장 및 북경사무소장 참석

○ 뉴욕 등 주요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현지 평가 및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\*하고 특이사항은 즉각 본원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\* 금융감독원은 본원-해외사무소간 핫라인 구축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중

- 아울러, 해외 현지에서도 주요 투자자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,
  - 잠재력이 높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영업·자금조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 외교차원에서 현지 감독당국 등과의 긴밀하게 공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- 지자체 파견협력관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대표하는 소통창구로서 지역 금융산업 발전·육성을 위한 지자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하는 한편,
-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 등 지역내 민생금융 대응과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본원의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